

# 초불확실성을 관통하는 통섭의 혜안 포스트 팬데믹 에듀테크의 혁신

글\_노현덕 편집장      사진 제공\_캐럿글로벌



팬데믹으로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성역 없이 일대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그중에 교육 및 HRD 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극심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여파에 위축되고 있진 않다. 오히려 도전과 혁신의 기회로 의기를 다지는 리더들도 존재한다. 노상충 캐럿글로벌 대표가 특히 그랬다. 작금의 초불확실성에 대해 제언을 아끼지 않는 그의 말씨와 눈빛에는 열정과 여유가 감돌았다. 그것은 최근 개발한 교육 플랫폼 「AI Tutor」가 수많은 기업에 성공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의 뇌리에는 인문학, 역사학, 심리학 중심의 경영철학과 인재철학이 자리하는 까닭이다. 그것으로 그는 팬데믹 너머의 세상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

▲ 노상충 대표의 경영철학과 인재철학은 초불확실성을 관통하는 모두에게 시사점이 상당하다.

노상충 대표는 글로벌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배가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는 소명의 토대 위에 캐럿글로벌을 설립했다. 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캐럿글로벌을 세계적인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시키고자 연일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실제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에 이미 로컬 법인을 세웠으며, 날이 확장하고 있다. 캐럿글로벌의 약진 이면에는 '1Spirit', '1Goal', '1Team'이란 핵심가치를 빠뜨릴 수 없다.

1Spirit은 '최고의 정신'으로서 최고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일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최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1Goal은 '고객'으로서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북극성처럼 항상 고객을 향하며, 존재 이유도 바로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1Team은 '팀워크'로서 협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개인으로서의 나를 벗어나 더 큰 나,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노 대표는 이러한 생각의 체계를 지난 20여 년 동안 캐럿글로벌에 뿌리 내리고, 지금의 팬데믹 속에도 요동 없이 경영을 지속해나가는 중이다. 그 때문에 그가 풀어내는 기업의 의미와 일터의 정의 또한 그의 신념이 스며있어 흘러들을 수가 없다.

“기업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두 가지 강력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



▲ 노상충 대표는 훌륭한 삶과 일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연성 인간'을 인재상으로 애기했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고, 또 하나는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울러 일터는 구성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담보하는 플랫폼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터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성장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의미에서 노 대표의 인격적인 품모가 엿보인다. 일터의 정의에서 성장을 삶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으로 제시한 측면도 인상 깊다. 특히 성장은 그가 추구하는 인재상에도 특별하게 등장한다. 그는 전 교세라그룹 회장이었던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항공인터내셔널 회장 또한 애기했던 '자연성 인간'을 인재상으로 언급했다. “자연의 속성에는 불을 중심으로 ‘불연성’, ‘가연성’, ‘자연성’을 애기할 수 있습니다. 불연성은 돌과 같이 환경에 상관없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가연성은 나무처럼

림 불을 지펴야 타오릅니다. 하지만 자연성은 휘발유처럼 햇빛에도 스스로 타오릅니다. 그 관점에서 자연성 인간은 성장의 메커니즘이 내재화됐기에 주도적으로 훌륭한 삶과 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인재관에 깃든 노 대표의 다각적인 통섭. 그것은 이제껏 캐럿글로벌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고 실현하는 근간으로 자리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동력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다각적인 통섭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현재의 변혁을 헤쳐가고자 혜안을 발휘하고 있다. 그 속에서 그는 캐럿글로벌의 이슈로 단연 ‘에듀테크’를 언급하며, 도전과 혁신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에듀테크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 콘텐츠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나날이 넘쳐나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교육이 ‘무엇(what)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어떻게(how)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화된 특정 대상자에게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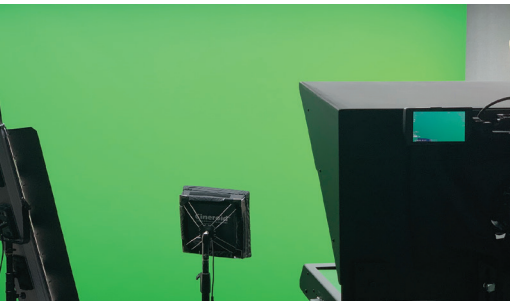
교육을 어떻게,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졌죠.”

노 대표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언급하며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플립러닝, 인게이지드 러닝, 언택트 러닝 등 에듀테크를 통해 학습자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노 대표의 통찰은 캐럿글로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작금의 팬데믹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팬데믹은 교육 및 HRD 산업에 엄청난 충격과 위협을 초래했다. 캐럿글로벌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팬데믹으로 당사의 오프라인 교육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한 후 포스트 팬데믹을 고려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는 ‘언택트 클래스’를 런칭하여 상당 부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지난 20년 동안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해왔던 경험 덕분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한결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노 대표의 얘기에서 짐작 가능하듯 캐럿글로벌이 팬데믹에 유연한 대처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비결은 평소 미래 역량을 차곡차곡 축적했던 덕분이다. 실로 캐럿글로벌은 점점 다양해지고 구체적으로 변모하는 학습자의 요구 조건을 맞춤형으로 설계해나갔다. 그 가운데



▲ 캐럿글로벌은 영상스튜디오를 통해 ‘언택트 클래스’와 ‘마이크로러닝’을 강화하고 있다.

런칭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AI Tutor'는 고무적인 성과였다. LG CNS와 공동으로 개발한 'AI Tutor'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Google로부터 2019 Top Partner로 초청받기도 했다.

팬데믹을 관통하는 캐럿글로벌의 도전과 혁신은 여타 교육 및 HRD 산업에 선사하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노 대표가 팬데믹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는 팬데믹을 불안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했다. 사실 팬데믹으로 죽음을 목격하며 학습된 공포는 인류에게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겠지만, 그는 구습과의 결별(Dégagement, 데가주망)이 역사적으로 항상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고 짚어줬다.

“팬데믹으로 만만치 않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인류의 보편적 현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COVID-19'는 물론 'SARS'나 'MERS' 같은 팬데믹이 다른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상에 적응하는 새로운 사회도 출현하겠죠. 그 사회에는 첨단기술이 중심에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며, 언택트를 활성화하는 정보통신기술 역시 진일보하리라 예측합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예리하게 전망하는 노 대표의 안목. 하지만 그는 포스트 팬데믹 속에서 결코 휴머니티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첨단기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양



▲ 노성중 대표는 팬데믹을 불안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방법을 고심했다.

적·질적 모두 강화될뿐더러 으레 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상 노 대표의 사람 중심 사고는 예전부터 캐럿글로벌의 사업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행복심리센터 「밝음」을 통해 개인의 심리 안정을 추구하는가 하면, 현장 구성원의 산업안전보건 및 백세시대 생애설계 사업 역시 확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경영철학과 인재철학, 미래 역량의 축적과 포스트 팬데믹 전망 등 노 대표가 전언한 메시지는 여운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초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시에 캐럿글로벌의 미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노 대표는 캐럿글로벌의 목표지향점을 꿈꾸며 '교육(Edu)+기술(Tech)=세계(Global)'라는 공식을 진작 도출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언택트다. 그 공식에 힘입어 그가 머지않아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캐럿글로벌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현하리라 확신한다.**HRD**